

학생 대상의 다각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



간호학생의 입장에서

전 대한간호학생연합회 회장 오 춘 자

벌써 겨울이 중턱에 온 것 같다.

사람들은 추운 겨울 속에서도 또 하나의 대화를 시작했다. 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한해가 출발하면 협회도 또 하나의 연륜이 쌓이게 된다. 그러면 협회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내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.

그런 가운데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그 많은 사업과 업무가 협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.

실지어는 협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. 분명 우리학생들은 중간호원이며 앞으로 정회원이 될 사람들인데 이런 상태로 졸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외전이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협회는 간호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넓혀야겠다.

그 대화속에는



첫째; 간호의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.

세계적인 간호의 방향과 국내간호의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의 준비와 적용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.

둘째; 취업에 대한 방향과 분야를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른 간호전문인으로서의 윤리강령 및 직업적 조정을 알려 주었으면 좋겠다.

셋째; 해외취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추세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 주었으면 한다.

넷째; 협회는 간호정신과 사업, 그리고 간호에 따른 다양한 소재를 언론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전문직 간호원의 상을 사회에 인식시켜 주었으면 한다.

물론 협회도 협회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선배들이 이룩해 온 역사와 체계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좀 더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단체가 돼주고 이런 입장에서 우리 간호학생들에게 기대와 좀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었으면 한다.